

## ‘포용의 독일마을’ 특별 전시회, 인기몰이

파독근로자 이야기에 관람객들 감동의 호응 이어져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입력 : 2025-02-10 16:26:20

경남 남해군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독일마을 광장 여행 라운지에서 열고 있는 ‘포용의 독일마을(부제: 기억과 만남의 공간을 만나다)’ 특별 전시가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포용의 독일마을(부제: 기억과 만남의 공간을 만나다)’ 특별 전시가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남해군제공

이번 전시는 설 연휴 기간과 파독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도 남해 독일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독일마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1960~70년대 파독 근로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남해 독일마을의 탄생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화 융합의 여정 등 3가지 주제를 담았다.

1부는 기억의 공간으로서 ‘과거와 만남’을 주제로 1960년대 독일로 떠난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들의 당시 출국 신청서, 여권, 항공권 등 생생한 자료 전시와 파독 근로자들의 일상을 담은 과거 사진 아카이브 등으로 꾸며졌다.

2부는 만남의 공간으로서 ‘독일마을 탄생’을 주제로 남해 독일마을 건설 과정과 그 속에 주민 이야기를 보여주는 신문 및 당시 자료로 채워졌다.

3부는 희망의 공간으로서 ‘독일마을의 의미’를 주제로 파독근로자 정착 마을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이주민이 지역에서 공생하며 자생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 신문과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파독 광부들의 근무지였던 탄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통로 공간과 파독 당시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영상, 독일마을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제작된 스토리 영상 및 디자인, 책이 다채롭게 전시되고 있다.

전시회 개최 이후 지난 3일까지 1213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번 전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한 관람객은 “독일마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깊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파독 근로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이곳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젊은 층의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사진 속 파독 간호사들의 젊은 모습을 보며 같은 또래였던 그분들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기까지 파독 근로자들의 공헌이 매우 컸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긴 설 연휴 기간과 파독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많은 분들이 독일마을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과 독일마을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